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한국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출소 장애인 등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역사회 발판 되길 바라”

9월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원장 정호연)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소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직업훈련과 일자리 지원에 있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법무보호공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일자리 사업,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사업, 현장실습업무,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호연 원장은 “오늘 맺은 업무협약이, 사회복귀 대상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취업의 어려움을 타파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자 개인별 맞춤형 훈련을 계획·실시하고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출소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은 호남·제주 지역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과 직업 재활을 위해 2002년에 개원한 한국장



애인고용공단 산하 장애인 전용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다.

직능원은 다양한 훈련분야와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 출소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시장 활성화 및 관내지역 재범률 감소 등의 교육 훈련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나주 남평읍, 독거노인 위한

츄츄한 복지 안전망 구축

나주시 남평읍(읍장 변동진)은 지난달 30일 관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도울실버타운(대표 임화신)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독거노인 생활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 분야 주요 현안인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등 츄츄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발굴 및 현장 상담과 맞춤형 사후 관리·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독거노인의 권익보호(안전확인, 노인학대 예방), 건강보장(노인 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안내), 영양관리 및 자원연계(푸드뱅크, 식료품, 식사, 후원금 지원) 등에 힘을 기울인다.

임화신 대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도울실버센터가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르신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기적인 물품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정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협약 소감을 전했다.

변동진 남평읍장은 “이번 협약이 츄츄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활 취약계층의 복합적 복지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반찬 배달’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 35가구에 반찬 나눔 봉사 실시

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제기, 민간공동위원장 유혜숙)는 지난 9월 24일 독거노인 및 장애인 35가구에 정성 듬뿍 담긴 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매월 1회씩 이루어지는 반찬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기금으로 운영되는 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거동불편세대, 식사 준비가 어려운 세대에 도움을 주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반찬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혼자 있어 식사준비가 힘들었는데 매달 잊지 않고 찾아주며 이렇게 맛있는 반찬까지 배달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제기·유혜숙 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나눔이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도록 힘쓰며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읍민 모두가 행복한 영암읍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우리마을 백세친구 있는 동구로 오세요”

동구형 新 지역사회돌봄 안전망 구축 ‘백세 안심·문화도시’ 조성

광주 동구가 1일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사각지대 문제와 여가활동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마을 백세친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복지기관·단체 관계자, 어르신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발대식,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 역시 지역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친구들과 함께 안심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동구형 新 지역사회돌봄 안전망 구축’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우리마을 백세친구’ 사업은 마

을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 3명이 한 모둠이 돼 매일 서로 안부를 확인해 응급상황 시 조기대응을 꾀하고, 지역기관·시설에서 연계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동구는 올해 100모둠 300명 어르신을 발굴해 시범운영하고, 지속적인 수요조사·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구는 돌봄시설·인력·예산 부족에 따른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지역 문화자원을 골고루 이용하게 하는 등 선도적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